

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

KTX 전라선 익산~여수 9월부터 운행 시작

세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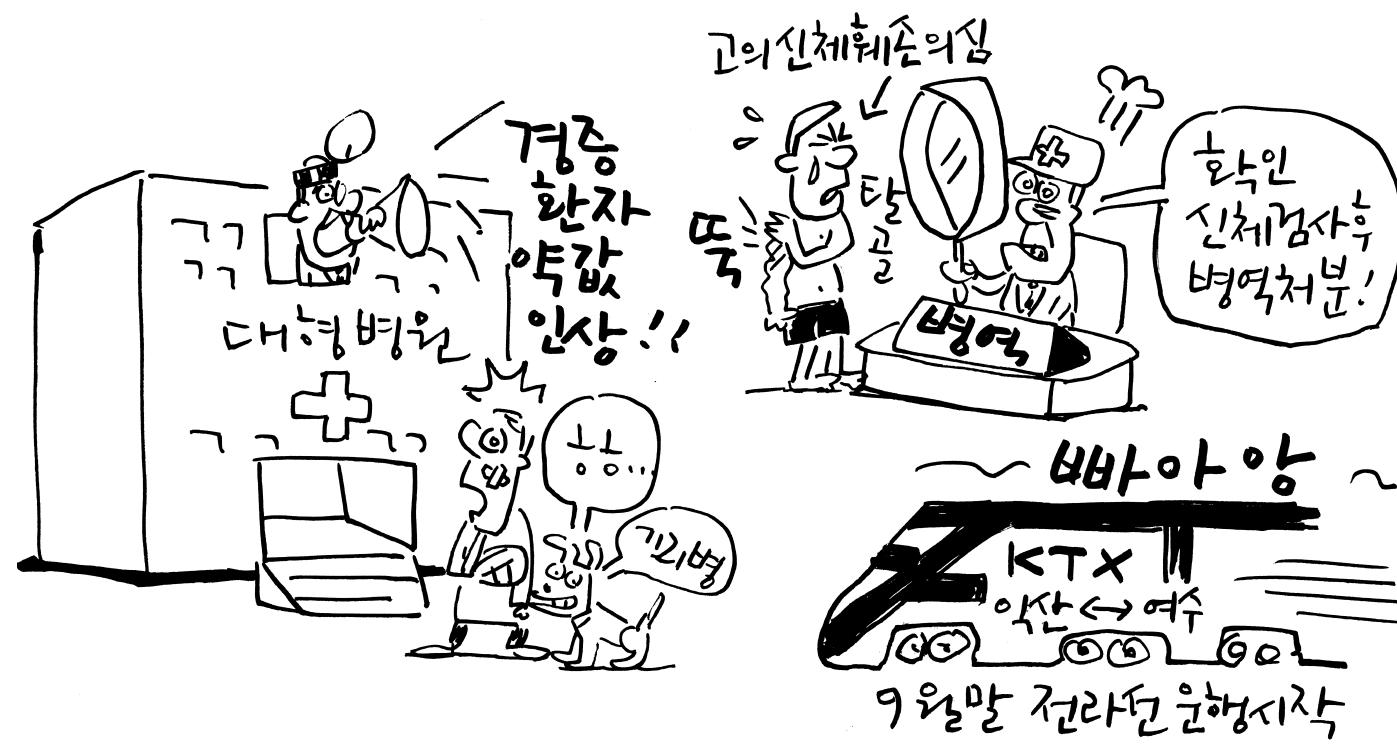
▲미용성형·애완동물진료·무도학원에 부가세 = 7월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상형, 러방 확대 및 죽소술, 주름살 제거술,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.

또 체육시설 설치·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폐지한다.

▲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 때 개별소비세 = 7월1일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·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경마·경륜·경정장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. 1명 1회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, 경륜·경정장 외매장은 200원이 부과된다.

▲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에 양도세 비과세·감면 제한 = 부동산 거래 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허위(다운 또는 업)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1세대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능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.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과 차액은 전액 비과세·감면 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한다.

▲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 =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.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.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, 비씨, 신한, 삼성, 롯데, NH농협, 치타, 하나SK, 와현, 제주은행 등 10개사다.



▲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=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11월 25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▲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=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자체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되던 장애인콜택시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.

교육·과학

▲유치원비 월납제 = 현재는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게 돼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게 됐다. 학부모는 희망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수업료를 낼 수 있으며, 기준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. 다만 입학금은 기준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낸다.

▲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성 확대 = 기존에는 전국 단일 모형에 의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왔지만 9월부터는 시도별·학교별 자율성이 강화된다. 전국 공통기준과 시도 자율영역, 학교 자율영역 등 3가지를 합친 평가모형이 도입되며, 나이스(교육행정정보시스템)와 연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돼 의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된다.

▲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 = 학교운영위원회를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열어 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하고,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. 또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가 발언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.

건설·부동산

▲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= 1~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7월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.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·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
▲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=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육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돼야 한다. 그러나 2~3인 가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7월부터 실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구성이 가능해진다.

▲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=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.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의 투자부분을 50%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부여한다.

▲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충수제한 완화 =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 폐지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를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

/연합뉴스

보건복지

▲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 = 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.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,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.

▲대형병원 이용 증증 환자 약값 인상 = 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.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에서 50%, 종합병원은 30%에서 40%로 인상된다.

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해 의료기관별 기능재정립을 거두면서 건강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.

▲30~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포함 =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추가 검진 적용대상은 약 120만명(30~39세 추가대상자 중 훌수년 출생자)이며, 이들의 검진에는 약 56억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소요된다.

▲제대혈 응행 허가제 실시 =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'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' 시행에 따라 제대혈 응행 허가제가 도입된다.

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... 직장 건보료 상한선 186만→ 220만원

대형병원, 감기등 경증환자 약값 인상 ... 공공 택지개발 민간 참여

법무·사법

▲재벌위험 이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제도 = 7월24일부터 이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벌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.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이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낸다. 약물치료제는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.

▲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 =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. 또 치료·수술·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.

▲외국인 지문확인제 확대 = 지난해 우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'외국인 지문 확인제'를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한다.

▲성실공의법인 재산 처분 신고제 = 성실공의법인이 기본재산의 20% 범위 내에서 기본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매도, 교환, 용도변경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.

▲서울중앙방역등기국 개소 =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신축 중인 서울중앙방역등기국이 8월 문을 연다.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 등기과, 상업등기과, 관악

등기소, 성북등기소, 강남등기소, 동작등기소 등은 등기국으로 통폐합된다.

▲법률시장 개방 = 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·유럽 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된다. 1단계(발효 직후~2013년 6월)까지는 외국로펌이 국내법 사무는 수행할 수 없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다.

방송·통신

▲이동통신 요금인하 =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가 1천원 인하되고 문자 50건도 무료로 제공된다.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'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'가 선보이며 선불요금은 1초에 4.5원(기준 4.8원)으로 인하된다.

▲개인정보 보호 제3자 제공 시 이용자 선택권 강화 = 7월6일부터 인터넷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위탁하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아울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의 회원가입 절차가 개선된다.

국방

▲병역기피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도입 = 병무청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▲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도 입영연기 가능 =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도 7월1일부터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▲국외이주자 종현역부지 지원자 가산점 = 8월부터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음에도 자진해서 각 군 병 모집에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는 선발 시 가산점을 받는다.

교통

▲KTX 전라선(익산~여수) 운행 시작 = 9월말부터 KTX 전라선의 운행이 시작돼 여수와 순천역에서도 바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. 익산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, 익산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43분 단축된다.

나주혁신도시 전문

새로운 역사가
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
투자하십시오!



상업용지 · 주차장용지 · 이주주택지 · 협의주택지

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

보물창고 (061)333-7077

010-3153-4242

위치 : 금천면사무소 맞은편

호남랜드공인중개사

상무지구 시청앞 나공사광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

남구 대촌부근 주거지역

●남구 입촌동 한일비리체 주변 대로변 인근 토지 1990㎡(602평). 일반주거지역. 이스필트포장도로 접한. 매매가 3.3㎡당 95만원. (슬래브 주택 30평 포함)

소태동 잡종지매매

●동구 소태동 대이파트 부근 잡종지 627㎡(190평). 매매가 3.3㎡당 130만원. 복개된 국유지 구역 약 70평 별도 이용 가능.

원도록 매매

●尹군 금일면 토목설계 매매 . 면적 : 198.184㎡(59,950평). 매매가 평당 2만원. 지하수 있음. 종전에 시장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 생활관리지역

전원주택지 매매

●남구 대지동(대촌부근) 일반주거지역. 미분내 나지대 886㎡(268평) 매매가 9800만원. 3.3㎡당 365,000원

소총공단내 공장매매

●광산구 소총동 소총공단내 공장용지 660㎡(200평). 공장 264㎡(80평). 매매가 3억.

화순군도 전원주택지 매매

●화순군 도곡면 혼산리 도곡면 소재지부근. 6.745㎡(2,040평). 관리지역. 현재임야. 2차선 포장도로 접한. 매매가 3.3㎡당 16만원. 농장 및 개인가능 임야 구함.

농장 및 개인가능 임야 구함

●무안 협평 영광, 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. 개인 가능한 임야도 10,000㎡ ~ 70,000㎡

부동산 전원주택지

●복구 회암동 대지 433㎡(131평). 전.일.1,994㎡(603평) 구 주택 2동. 매매가 1억 6,000만원. 조망 경관양호.

010-3616-8698. 062-233-2222

중앙공인중개사

●상가건물

☆. 일곡자구 30m로 버스 승강장옆 상가건물

보증금4억 월세1,540만원 매매가25억5천만

☆.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1억5천만원

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5천만원

☆. 광송간 대로변 운천저수지 4거리 인근

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

☆. 광송간 대로변 4층건물 매매가 5억5천만원

●전원주택

☆. 광산구 오운동 대지 : 322㎡ 건물 : 95㎡

매매가 : 5천만원

☆. 담양군 대전면 현재글 대 : 1,330㎡ 건 : 60㎡

매매가 : 2948천만원

●대지·전·답·임야

☆. 광송간 대로변 대지 : 370㎡ 매매가 : 13억5천

☆. 마루동 딥 3,000㎡ 매매가 7억원

☆. 벽진동 딥 5,600㎡ 매매가 11억원

☆. 금호동 딥 1,600㎡ 매매가 4억7천만원

☆. 오치동 대지 506㎡ 매매가 4억6천만원

☆. 북구 운암동 프리스토털령 35M 도로접

대지 677㎡ 매매가 5㎡당 3백만원

☆. 암촌동 경작초미터대 : 3,600㎡ 매매가 4억4천

원(원룸적합) 매매가 ㎡당 1,438㎡

(원룸적합) 매매가 ㎡당 20만원

☆. 광산구 우산동 딥 279㎡ 매매가 4,200만원